

주신 기회

올해는 가을을 더 만끽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겨울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변화인가? 아니면 사람들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과 그 전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금과 같은 기회인데 늘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아니고 자연의 시계가 잘못되어서도 아니었다. 전적으로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길을 지나다니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지만 다음 주에는 걱정하고 단풍을 즐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지 정작 시간을 내고 기회를 누리지는 못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추운 기온과 세찬 비로 인하여 나무의 잎들이 전부 떨어져 버렸다. 결국 올해에도 친구들이 보내주는 여러 지역의 가을 사진을 보며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었다.

그것이 가을뿐일까? 내가 지나치는 좋은 기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행복의 시간들, 깨달음의 시간들, 감동의 시간들, 사랑의 시간들... 모두가 내 주위에 오고 가지만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기회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또 다른 은혜로 행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마음으로 한 순간 순간을 맡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가?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감동과 찬양의 시간에 주시는 기쁨, 말씀으로 깨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나누라고 하시는 사랑이 그런 것 아닌가? 이러한 것은 또 다시 혹은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다.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레코드판의 음악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가을은 놓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6절) 라고 하신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다. 그 때에 결코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을 하게 된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간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많이 혼란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